coupang newsroom

여성 사업가들의 힘이 되어 준 쿠팡

2022. 11. 9.

쿠팡은 여성 사업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월 8000만 원 벌었어요” - 백수정, 착즙주스 ‘퓨어프레스’ 대표

퓨어프레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입니다. 쿠팡이 다 알아서 관리해주니까 제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대표님. 쿠팡 덕분에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제조 공장도 두 번 확장하고 120평짜리 사무실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쿠팡 교육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됐어요” - 박은아, 이유식 ‘맘스’ 대표

쿠팡의 대표 이유식용 제품 ‘맘스’는 ‘2021년 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금상을 받을 만큼 제품성을 인정받았지만, 판로가 문제였죠.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막했을 때 쿠팡을 만나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자 가정주부였던 대표님이 사업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전부 쿠팡 덕분이라고 합니다.

“쿠팡과 함께 보람찬 일을 했어요” - 전병순, ‘광복영농조합법인’ 대표

곰곰 브랜드(쿠팡의 PB 상품)의 시작을 알린 ‘곰곰쌀’은 광복영농조합법인과 함께했습니다. 전병순 대표님은 ‘쌀이야말로 대한민국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상징인 만큼, 쿠팡과 함께 국내 지역 농산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쿠팡 덕분에 좋은 사업가이자 엄마가 되었어요” - 김태연, 펜션 ‘까사델 마마’ 대표

펜션 운영은 자신 있었지만, 홍보와 마케팅이 걱정이었던 김 대표님은 쿠팡트래블에 입점한 후 펜션 예약률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펜션 사장님은 ‘쿠팡이 없었으면 사업하면서, 애들 세 명 동시에 못 키웠을 거예요. 고객 입장으로나 소상공인으로서도 쿠팡에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성들의 눈부신 활약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쿠팡은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 사업가를 응원합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